

프로페셔널리즘에서 아마추어리즘으로

From Professionalism Toward Amateurism :
A Hope for Tomorrow's KIRA

건축사협회의 내일에 거는 기대

신기철 /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
by Shin Ki-Cheol

에피소드

필자는 대학연구실에 육년 걸려 얻은 박사학위증은 걸어 놓고 있지 않아도 건축사 면허증은 걸어 놓고 있다. 명함에도 으레 건축사임을 밝힌다. 비록 실무를 떠나 있어도 건축사임을 자랑스레 여기는 한편, 언젠가 다시 실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자기확인의 한 방식이다. 아직 약관이라서 불러주는 데도 별로 없지만 가끔 부름을 받는다 해도 무슨 위원회나 하는 곳들에 필자는 되도록 끼지 않으려 한다. 그래도 지난 몇해 동안 건축사설계시험위원으로 불리운 일은 한번도 마다한 바 없다. 새롭고 유능한 건축사를 정성스레 가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뜻있는 일이라 보기 때문이다.

필자는 우리 주변의 건축단체들 가운데 이 건축사들이 모인 건축사협회(그저 '협회'로 부르기로 함) 아마로 가장 큰 책임과 가능성을 지닌 전문가 집단으로 여긴다. 이는 건축사 잡지에 글을 올리노라 입치레로 하는 말은 아니다. 여러해전 고(故) 김희춘 교수님을 비롯한 몇몇 분들과 함께 건축계의 관·산·학계(官·産·學界)를 묶는 연구집단을 설립하지는 준비모임을 가진 적이 있다. 이른바 '도시건축평의회' 설립준비모임이 그것이다.¹⁾ 그 때도 필자는 이 모임을 꾀는 측은 협회여야 함을 주장했고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여 여러 차례 그 준비 모임을 협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렇게 협회에 관심을 가져 왔건만 필자에게 협회는 아직껏 암상자(black box)에 가린 듯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 흔한 건축사 잡지조차 보내 주지 않기에 협회 실정에 어둡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경로로 잡지를 보내 달라고 청탁을 하면 한 두어 달 오다가 끊어진다. 두어 해전 건교부 건축사시험위원회에서 협회장을 만나 불평을 했더니 어째 그런 일이 있는가라며 꼭 선처(?)해 주실 것으로 약속하셨으나 이 때는 한권도 오지 않았다. 눈앞에 놓인 설계현실의 동향과 문제를 아는 일은 설계실무에서뿐 아니라 가르치는 일에도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협회잡지 하나 받아볼 수 없다는건 억울하다. 대한민국 대학에서 설계를 가르치는 교수가 과연 몇이나 되는가. 교수 건축사는 더욱더 몇 안된다. 협회는 이 몇 안되는 설계교수들을 제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다니 답답하다. 이런 사소로운 억울함과 답답함을 갖는 이들이 때로는 협회와는 아예 인연을 끊겠다는 결심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협회가 꼭 필요할 때 반(反) 여론의 기수가 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원고 청탁을 기꺼이 받아 이글을 쓴다.

프로페셔널리즘과 아마추어리즘 : 부어스틴(Daniel Boorstin)의 아마추어 예찬론

협회는 전문가 집단이다. 그런데 왜 여기에 때론 답답하고 때론 억울한 심사를 갖는 이들이 생겨나는가? 전문가 집단은 그 속성이 '달한' 집단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잠깐 미국의 역사가 부어스틴의 '아마추어 예찬론'을 빌어 이 전문가 집단의 '달한 속성'을 들여다 보기로 한다.²⁾ 부어스틴에 따르면 "아마추어(amateur)의 어원이 라틴어 amator(lover)임을 지적하면서, 아마추어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을 하며, 전문적 권위나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좋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내린다."³⁾

이에 반해 '전문직업인'(professional)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한다. 즉, "법은 법률가들을 위해 존재하며, 대학은 대학교수들을 위해 존재하며, 언론은 언론인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건축의 전문가들은 사진을 찍기에 좋은 멋진 건축물을 만들어 그들끼리 칭찬하며 흐뭇해 하지만, 그런 건축물엔 쓰레기를 버릴 곳도 없고 자전거 하나 세워둘 공간도 없다는 것이다."⁴⁾ 이 전문직업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집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향을 부어스틴은 "전문직업적 오류"라 부른다.

한편 '관료'(bureaucrat)의 어원은 'bureau,' 즉 18세기 프랑스 왕실 책상을 덮는 고급 천에서 왔는데 바로 이런 고급 천이 덮힌 책상에서 일하는 이를 관료라 불러 왔다 한다. 위의 '전문직업적 오류'에 대해서 "새로운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란 명제 아래 "극도의 조심, 절차의 정규성에 대한 집착, 결단의 회피"를 일삼는 관료주의 행태를 부어스틴은 "관료제적 오류"라 부른다.⁵⁾

부어스틴은 이 두 오류체계가 좁게는 아마추어 정신을 질식시키고 있고 넓게는 모든 사회병리 현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귀족주의 사회는 통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통치했고, 전체주의 사회는 통치 전문직업인이 통치한 반면, 민주주의 사회는 일시적으로 나섰다가 다시 원상복귀하는 아마추어가 통치하는 사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시적으로 나섰다가 다시 원상 복귀하는' 아마추어의 세계란 바로 위의 두 오류가 걸린 '열린 집단', '열린 세계'이다.

'달한' 도시, '달한' 집단

우리 대도시와 건축은 먼 산, 먼 발치에서 내려다 볼 때 가장 그럴싸하다. 자못 웅장해서 선진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성 싶다. 우리 도시는 조감도로 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조감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지면, 다시 말해 하늘에서 배치도로 보게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맨땅과 녹지, 길과 집, 무채색과 유채색, 직선과 사선, 다시 말해서 도시의 부분과 전체를 엮는 질서가 갈갈이 찢기듯 한쪽 낙서가 되고 만다. 반대로 그 각도가 예각에 가까워지면, 다시 말해 땅위에서 눈높이로 보게 되면 어떠한가. 내집과 네집, 땅과 길, 사람과 차, 집터와 장사터, 그리고 입면과 간판, 보도블럭과 연석등—이 모든 것들이 서로 투정하듯, 토라진 듯 울퉁불퉁 도대체 어우러짐이라고 찾아 볼 수가 없는 형국 일 때가 많다. 조감도로 볼 때 동경과 서울은 엇비슷하다. 그러나 눈높이로 볼 때 매우 다르다. 이 '다름'의 본질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는 도시의 '이것'과 '저것' 사이가 '나뉘' 즉 구획도시(區劃都市)의 현상에서 온다고 필자는 줄곧 주장해 왔다.⁶⁾ 이 구획도시의 현상이란 '이것'과 '저것' 사이를 없애는, 즉 '달한' 공간을 만드는 현상이다. 이 '사이'(間)없음의 현상은 넓게는 '건축'과 '도시', '건축'과 '사회문화' 사이, 좁게는 '내땅/네땅'과 '내집/네집' 사이 문을 걸어닫는 방식들로 나타난다. 위의 두 오류체계, 다시 말해서 전문가와 관료를 '달한' 집단 속에 가두는 일도 집단과 대중사이를 나누는 일에서 생겨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나뉘현상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은 생존본능에서 비롯한다. 나눔으로써 생존에 필요한 이익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내땅은 한톨 남에게 내주어선 안된다. 그래야 내사람, 내차만이 내땅을 쓸 수 있기에. 그래서 차츰 건축은 그 주변으로부터, 도시로부터, 그리고 그 사회문화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1) 지금의 '도시건축연구원'

2) Daniel Boorstin, The Discoverers : A History of Man's Search to Know His World and Himself (New York : Random House, 1983)을 강준만 '이미지와 사랑에 빠진 현대인', 인물과 사상(서울 : 도서출판 개미고원, 1997), pp. 267~286에서 소개하고 있음.

3) 강준만, 위의 글, p. 273에서 인용.

4) 위의 책, p. 273.

5) 위의 책, p. 274.

6) 이 주제를 담는 글은 "해체와 재구성 : 도시건축운동을 향한 전략." 건축과 환경 No. 73(1990. 9) : 108~110 / '도시/건축'에서 '도시건축'으로 - 건축과 도시의 만남' 기획전이 남긴 메시지, '건축가 No. 161(1995. 12) : 69~71 / '자유주의가 현대도시공간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비판적 해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0:6(1995. 12) : 277~291 등이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우리 건축계는 숨가쁘게 커왔다. 여기엔 협회를 비롯한 건축단체들의 힘이 컸다. 그런데도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한 목소리를 내는 일을 보게 된다 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들 단체들이 아직도 서로 사이에, 그리고 도시사회와 대중문화 사이에 놓인 문을 활짝 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전문직업적 오류'와 '관료제적 오류'가 널리 통용되는 '달현' 집단처럼 보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두 오류를 깨는 일보다 두 오류사이에 유착함으로써 '내' 집단의 이익을 꾀하는데 민감한 때를 종종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로 한참 사회가 떠들썩할 때, 건축법상 도시설계제도를 대신하여 도시계획법속에 '상세계획 제도'를 들여 놓으려 할 때, 또 정도 600년을 기린다고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서울의 도시와 건축을 되새기고 그려 나가려 할 때, 그리하여 건축 집단과 집단이, 건축과 도시가, 그리고 건축과 대중이 만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에서 우리 전문가 집단, 특히 협회가 어떤 노력을 폈는지 필자는 기억에 없다.

내일의 협회—프로페셔널리즘에서 아마추어리즘으로

필자는 여러 건축단체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 분야가 커가는데 협회가 가장 큰 일을 맡아낼 수 있고 또 맡아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어느 단체보다도 큰 집과 돈, 그리고 많은 사람과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열린 집단일 수만 있다면 내일의 협회는 가장 큰 가능성을 지닌 건축단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을 열 것인가.

첫째로, 건축단체 서로간에 놓인 문을 열어야 한다. 수없이 논란해온 과제지만 건축가와 건축사의 구분은 몹시 애색하고 작위적인 바 있다. 등록 건축사가 아니면 교수건축사는 협회원 가입은 물론 협회지를 받는 일조차 그 문이 활짝 열려있지 않다. 필자의 에피소드 경우처럼. 산(産)으로서 협회와 학(學)은 더욱 가깝게 만나야 한다. 이러자면 협회가 연구기능을 갖춘 건축학계의 연구직능을 지원하든가 하자. 심의다 심사다 해서 아쉬울 때에만 이른바 로비차원에서 서로가 만나선 곤란하다.

둘째로, 건축과 도시사이에 놓인 문을 열어야 한다. 20세기 문턱에서 미국 대도시들에서 이른바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의 연쇄바람이 불었던 때가 있었다. 여기에는 등록 건축사집단의 힘이 컸다. 다시 말해 건축전문가 집단이 건축과 도시, 건축과 나라정책, 그리하여 건축과 시민사회를 엮는 '열린' 마음가짐을 발휘함으로써 워싱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대도시의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이 연쇄바람따라 모르긴해도 많은 건축가들이 도시개조 차원의 큰 프로젝트 기회들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잔 이익을 쫓는 '전문직업적 오류'를 깬으로써 도리어 큰 이익을 얻었던 얘기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요소가 찾아 올 듯 싶다. 여러해 끝던 '도시개발법'이 드디어 빛을 볼 것이라 한다. '도시다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명제아래 이 법은 도시계획법을 비롯한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어지럽고 잡다한 관계법들을 통합할 것이라 한다. 이에 따라 상세계획으로써 토지이용, 건축물 배치, 용적률, 건물의 용도 등 도시의 기본적인 물리적 구조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라 한다. 이로써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는 건축이 도시로 편입하는 현상으로, 좋게는 건축과 도시가 만나는 현상으로 매듭지워질 것이다. 건축이 도시로 편입한다 함은 건축현상이 도시현상의 하위-하청구조로 전락함을 뜻한다. 건축과 도시가 만난다 함은 다음 세기에 엄청난 규모로 우리에게 다가올 정보도시, 환경도시, 복합도시 개발의 역사(役事)가 우리 손에 달려 있게 됨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사회 사이에 놓인 문을 열어야 한다. 이러자면 평소에 산과 학이 힘을 모아 관을 돕고, 그리하여 관이 우리 산과 학을 돕도록 해야 한다. 우선 짓고보자는 성과주의, 개발주의를 반성하면서 건축사가 도시문화시대의 주역이란 사회 통념을 쌓아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중이 고마워하고 언론에 회자(膾炙)할 일들을 꾸미고 투자하자. 한편 최근에 건축은 새세대에게 가장 인기있는 전공 분야가 되었다. 이 가장 똑똑한 새내기들을 제대로 길러 이 도시문화시대의 주역으로 키워야 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대학에 있긴 하다. 그러나 이들을 키우는데 협회가 도운 일이 그간 별로 없는 듯하다. 건축공모전을 통해 협회와 대학이 만날 수는 있어도 대학 쪽에서 보면 너무 잦은 공모전의 기회들은 오히려 학생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설계과정을 소홀히 하게끔 하는 공해로 비칠 때가 있다. 보다 본질에서 도울 길을 찾아 이들을 키운다면 이 새세대들이 어느 때엔가는 산의 일원이자 협회의 주역으로 자라나 협회가 그들을 키웠던 고마운 기억을 되새기며 다음 세기 우리의 산과 학과 관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열린 전문가 단체란 전문가 정신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아마추어 정신으로 무장한 단체이다. 내일의 협회는 이 아마추어 정신으로 무장한 단체로 거듭나기를 삼가 기대한다.